

목포시-신안군 통합 급물살 타나

김종식 시장·박우량 군수 행정통합 공감 동일 생활권으로 서남권 도약 새로운 기회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행정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시장과 박 군수는 지난 10일 목포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신안·목포 통합 토론회'에서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관련 기사 12면〉

김 시장은 "행정의 광역화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고, 박 군수도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양 지역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공감했다.

특히 박 군수는 "통합 추진이 조속하게 이뤄졌으면 한다. 빠르면 2022년 통합 시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이 토론회가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구체적인 시까지 언급했다.

박 군수는 "신안군과 목포시는 행정구역상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다"면서 양 지역의 역사적 동질성에서 통합의 명분을 찾았다.

신안군에 따르면 목포시 전체인구의 약 60%가 신안군이 고향이거나 연고가 있고, 2만3000여 가구의 신안 인구 약 40%가 목포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 또 신안군 공무원 800여명 중 90%가 목포가 생활권이며,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연강농·수산업 소득 8000억원의 소비처가 목포다.

김 시장은 "몸집이 커지면 거기에 맞게 새로운 옷을 맞춰 입어야 하고, 큰집을 지으려면 큰 집터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통합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장은 "천사대교 개통 이후 판

광분야가 활기를 띠는 등 서남권 도약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를 행정 통합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서남권지역은 오랜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성장의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인 목포·신안을 하나로 묶기 위한 지역민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군수도 "통합했을 때 통합시 인구가 30만명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며 "진정 상생하는 길이 무엇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신안·무안이 포함된 무안반도 통합은 지난 1994년 이후 6차례 추진됐으나 무안군이 지역정서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신안군도 가세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김종식(오른쪽)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10일 목포해양대에서 열린 '신안·목포 행정 통합 토론회'에 참석, 통합에 공감하며 악수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전남도 '지역개발 공모사업' 5개 지자체 선정

강진·해남·완도·곡성·함평 총 64억원 국비 지원 받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강진·해남·완도·곡성·함평 등 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70개 성장축전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를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에서 총 131개소를 지역개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전남도내에서는 32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2개 유형의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이다. 지역생활 복지와 지역 관광·체험 등을 지원할 '일반사업'에는 강진·해남·완도가, 고령자를 위한 공간 정비 등을 지원할 '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에는 곡성·함평 등이 뽑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들 지자체는 개소당 최대 20억원까지 모두 6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강진과 해남은 '풍류를 살려라'라는 공동의 테마로, 두 지자체를 각각 대표한 인물인 다산 정약용과 고산 윤선도의 정신·문화사적 콘텐츠를 연계한 체험·관광형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도는 '결인의 골목 양후의 재생, 빛으로 사랑을 담다'라는 테마로 완도를 근대리 일원 낙후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주민생활환경 및 경관개선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고령자를 위한 사업으로 곡성은 육과면 설옥리의 경로당 리모델링과 고령자의 어울림 공간을 조성하는 '슬기로운 어울림 공동체마을 조성사업'이 채택됐으며, 함평은 대동면사무소 유휴공간에 나눔 경로식당을 조성해 노인식사 제공과 쉼터 공간을 제공하는 '함께 먹는 대동면 나눔 경로식당 조성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전남소방본부 '119수상구조대' 운영

해수욕장·계곡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교육 등을 맡게 된다.

전남소방본부가 도내 41개 해수욕장과 강·계곡 등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9수상구조대' 운영에 나선다.

전남소방본부는 12일 "13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도내 여름 피서지에 119수상구조대 161명의 인원을 배치해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대는 수상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소방당원과 함께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함께 수상안전 홍보,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교육 등을 맡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와 공동 대응방안을 구축,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안내와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 전남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 물놀이 장소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 감염우려와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물놀이 이용객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물놀이 사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지역경제 '훈풍'

지역업체 인력고용·지역 장비사용 올 상반기 1073억 공사계약 체결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사 일정에 맞춰 지역업체 인력고용과 지역 장비 사용, 신속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12일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착공한 2호선 건설 공정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073억원 규모 공사계약이 체결됐다.

토목, 구조물, 지반보강, 조경, 지장물 이설 등에서 주요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철강과 복공판 등 건설자재와 굴삭기 등 지역 업체 건설 장비 등이 투입되고 현장에는 지역 인력을 우선 고용하고 있다.

착공 후 현재까지 고용된 연인원 4853명 가운데 지역 인력은 연인원 4698명으로 파악됐다.

지역업체 장비 사용 대수도 197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역 인력과 지역 장비 사용률은 전체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2호선 1단



지난해 9월 착공한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이 착착 진행되면서 올 상반기에만 1073억원대의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에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계 시공사 6개 업체와 광주 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향상, 자재·장비 사용 활성화, 지역인 우선 고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2호선 건설사업은 총 3단계로 나뉘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는 시청에서 월

대컵경기장, 백운광장을 지나 광주역까지 약 17km 구간으로 본선·정거장 20개·차량기지 1개 등을 만드는 데 2023년까지 5685억원이 투입된다.

박남주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코로나19 여파에도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에

큰 도움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반기에도 올해 예산을 계속 집행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역 업체 사업 참여 확대, 지역 생산 자재와 장비 사용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올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74%로 상승

올해 전남도내 농가들의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67%에서 74%로 대폭 상승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목표치인 72%를 넘어 74%를 기록했다. 벼 재배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지난 5월부터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면서 도내 농민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벼 재배농가는 링링과 타파, 미탁 등 잇따른 가뭄과 풍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올해 총 6만1068농가가 11만3821ha를 가입해 목표를 상회한 74%의 가입률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782호(1만

1726ha)가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 가입률은 영광군이 가장 많은 98%를 달성했으며, 이어 강진군이 94%, 장흥군이 85%로 뒤를 이었다.

곽홍섭 전남도 식량유통과장은 "이번 가입률 증가는 농가들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책으로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며 "올 하반기 10월과 11월 중 판매할 마늘, 양파 등 품목도 판매시기에 맞춰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지난 2016년 7만5574ha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최근 5년간 51%(3만8247ha) 이상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름,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 으로
오세요!

순창이 참좋다. Co.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

사색 오感